



同窓會報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동창회 · 재단법인 청관장학회

제 163 호

2009년 8월 1일

발행인 : 변 주 선

home page :

www.snueaa.or.kr

e-mail :

snueaa@hanmail.net

100-130 서울 중구 순화동 215 비비엠티 1807호 전화 : (02)6399-6500 / (02)720-8116 FAX : (02)720-8117

자랑스런 “제1회 청관대상” 수상자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동창회 정기 총회 및 제1회 淸冠大賞 시상식

2009.5.23(토) 주최: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재단법인 淸冠 獎學會,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동창회



▲ 좌로부터, 卞柱仙 본회 회장, 張忠權 단국대 명예총장, 李應禧 모교 명예교수, 沈璣鎭 전 서울교육대학교 부설초등학교장
(관련기사 5면)

2009 사범대학 정기총회를 마치고



회장 변 주 선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동창회 '제55차 정기총회'와 서울대학교 사범대학과 동창회와 재단법인 청관장학회가 공동 주최한 '제1회 홈커밍데이'가 많은 선후배님들의 성원에 힘입어 성공리에 개최되었습니다.

특별히 금년에는 정기총회와 더불어 많은 동문들이 한자리에 모여 동문 축제 분위기를 갖고져 홈커밍데이를 첫 번째로 거행 했습니다. 애써주신 이상주 전 회장님과 사범대학의 조영달 학장님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청관대상을 수상하신 분들께 축하와 더불어 본 대학의 자랑으로 생각합니다.

행사에 참여해서 자리를 빛내주신 분들과 행사를 후원해 주신 분들, 행사 진행을 위해 애써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계속하여 동창회와 모교발전을 위해 많은 동문들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제 1회 홈커밍데이 행사를 마치고 더욱 발전된 축제의 장을 기대하며...

선후배 동문 여러분의 健勝을 기원합니다.

지난 5월 23일(토) 정기총회에서 제1회 淸冠大賞을 수상하신, 李應百 선생님, 張忠植, 沈燦錫 선배님께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바쁘신 중에도 행사에 참석해 주신, 鄭元植 전 국무총리, 禹寅燮 고문님, 金商俊 청관대상운영위원장님, 曹永達 모교 학장님 외에 많은 선후배 동문들께 감사드립니다.

제2부 노천극장에서 개최된 제1회 홈커밍데이 행사에도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시었고, 모처럼 선후배 동문과 교직원, 재학생들이 한자리에 모여 老少同樂 祝祭 한마당을 벌일 계획이었으나, 갑자기 발생한 變故로 동문들 사이에 以心傳心으로 歌舞를 自製하자는 분위기가 조성돼 대부분의 계획된 프로그램을 포기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많은 동문들이 아쉬운 발길을 돌렸으나, 그래도 끝까지 남아있던 동문들끼리 對話를 나누며 모처럼 한가한 친교의 자리를 함께 해주신데 대하여 더욱 감사의 말씀을 드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동창회
홈커밍데이 추진위원장 이상주

립니다.

이번 제1회 홈커밍데이 행사를 열심히 준비한 卞柱仙 회장과 채현구 진행위원, 그밖의 준비위원 동문들, 시선과 편의를 제공하고 도와주신 曹永達 학장을 비롯한 보직교수와 직원들, 자원 봉사를 해 준 재학생 후배들에게, 비록 준비된 행사를 계획대로 치르지는 못했으나 충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이날의 행사를 위하여 재정적 지원을 해 주신 동문 여러분과 예쁜 탁상시계 기념품을 마련해 주신 曹永達 학장님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굳이 하나 짚고 넘어가자면 모처럼 모교에서 행사를 했음에도 행사를 도와준 몇몇 보직 교수 외에 대다수의 동문교수가 불참한 것에 대한 서운함은 비단 본인만의 생각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행사가 더욱 충실히 계획되고 더 많은 동문들이 참가하여 하루를 축제로 즐길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기를 기대합니다.

2009년 정기총회 및 홈커밍데이

- 석사·박사 출신자도 동창회원으로 -

본회는 지난 5월 23일(토) 모교 교육정보관에서 2009년 정기총회를 갖고 2008년도 결산과 2009년도 예산안을 심의 통과하였다.

이날 총회에서는 타고출신 본교 석사·박사과정 중 학위기에 사범대 학장 명의가 병기되는 출신자와 과거 교육대학원 출신자들도 사범대학 동창회 회원으로 영입하기로 회칙을 개정하였다.

동창회는 총회가 끝난 후 노천극장으로 장소를 옮겨 동문들과 교직원, 재학생들이 어울어지는 홈커밍데이 한마당 축제를 기획했으나, 이날 노무현 전 대통령의 갑작스런 서거로 가무를 자제하는 참석 동문들의 의견에 따라 조용한 가운데 행사를 축소 진행하였다.

이날 행사에는 변주선 회장, 조영달 학장 외 제1회 청관대상 수상자인 심격석, 이용백, 장충식 동문, 정원식 전 국무총리, 김상준 청관대상 운영위원장, 우인섭 고문, 강신주 삼선전자 회장, 이찬교 전 방송통신대 총장, 이상주 전 부총리, 이돈희 전 교육부장관, 박봉배 전 서울교육대학 교수, 정완호 전 한국교원대 총장, 이정식 CBS 사장, 이원희 한국교총 회장, 진동섭 한국교육개발원 원장, 이원우 꽃동네연도사회복지대 총장, 곽병선 한국교육학회 회장 등 200여명의 동문이 참석하여 성황을 이루었다.



張忠植(歷·52入) 범은재단 이사장



「대년 모교 재학생 10명에게 장학금 지급키로」

범은장학재단의 張忠植 이사장께서는 毎年 모교 장학생 10명에게 장학금을 사대동창회의 淸冠獎學會를 통하여 지급키로 하였다.

단국대 명예총장이신 張忠植동문께서는 대한적십자사총재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장, 남북체육회담 한국 수석대표 등을 역임하셨고, 최근 세계 최대의 漢語大辭典을 32년만에 完刊하여 漢字文化 및 學術界에서 크게 각광을 받기도 하였다.

同窓會報 발송에 관한 案内

本 同窓會報는 每回 15,000부 정도를 인쇄 발송하고 있는 바, 住所不明 등으로 每回 500여부가 반송돼 오고 있습니다. 그 동안 동창회에서는 반송자의 주소 등을 확인하여 재발송하고 있으나, 이는 人力 및 경비(1회 발송비 600만원 정도, 연간 2천여만원)의 낭비가 막심합니다.

이에 앞으로 주소 변경 未申告人과 會費 2회이상 未納人에게는 부득이 會報發送을 중단키로 하였습니다. 會報를 받지 못하신 분들께서는 이점을 諒知하시고 同窓會 홈페이지(www.snueaa.or.kr)에 기재된 會報를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변주선 회장, 심재철 예결위원장 등과 축하오찬



호로부터 소기홍, 곽창신, 심재철, 변주선, 신형철 동문

변주선 회장은 지난 5월 24일(일), 심재철(英·77) 위원의 예결위원장 취임을 축하하며, 곽창신(英·77) 한나라당 수석전문위원, 신영철(英·77)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장, 소기홍(英·79) 기획재정부 예산실 행정예산 심의관 등과 오찬 모임을 가졌다.

등산대회



지난 4월 26일(일) 제28회 동문 친목 등산대회가 있었다.

40여 동문이 참석한 이날의 등산대회는 오전 9시 30분에 서울대학교 교수회관 뒤편 잔디밭에 집합하였으며, 회원들은 두 개조로 나뉘어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A조는 권악산 등반을, B조는 교내 트레킹을 하였으며, 12시 30분 한 자리에 모여 맥주와 소주를 곁들인 도시락 점심을 하며 하루를 즐겼다.

소모임 개설 지원안내

각과 동문회, 지회, 취미(바둑, 등산, 골프 등) 및 학술활동과 관련한 소모임 개설을 희망하시는 단체의 카페구축과 운영을 지원합니다. 특히 각과 동문회에서는 온라인을 이용한 회원교류 활성화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국제고등학교에서 임원회의 개최



동창회는 지난 7월 14일(화) 서울국제고등학교(교장 李柄好)에서 상임이사 및 각과 동문회장, 동호회장 합동 회의를 갖고 동창회 현안들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다음 사항들을 심의 결정했다.

가) 동문 친목수련대회

- 날짜 : 2009년 10월 8일(목) 9:00출발
- 장소 : 인천세계도시축전(박람회) 관람 및 인천대학교 동과 관람

나) 2009년도 '송년의 밤' 개최 확정

- 날짜 : 2009년 12월 1일(화)
- 장소 : 프레지던트호텔 31층 슈벨트홀
- 행사 : 육선 및 과별 장기자랑 등 다양한 프로그램

다) 동창회 회칙 개정의 건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교육행정연구소원의 '교육행정지도자과정 출신자'에 동창회원 자격부여(재석 18, 찬성 13, 반대 3, 기권 3)

이날 회의는 李柄好 동문의 후의로 서울국제고등학교에서 개최했다. 이날이 발전하고 있는 이 학교의 모습에 참가자들이 감탄을 금할 수 없었으며, 李 校長의 노고에 모두가 찬사를 보내며 격려하였다.



카페꾸미기 공부방 회원 모집안내

포털 사이트에서 카페를 개설하는 과정과 배경스킨, 이미지, 움직이는 글, 음악 듣기 등을 만드는 법을 배우고 이미지와 음악과 같은 기본 소스를 같이 공유하고 공부하는 소모임을 만들고자 합니다. 회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제1회 청관대상 시상

본회는 지난 5월 23일 모교 교육정보관에서 개최한 정기총회에서 제1회 淸冠大賞 시상식을 갖고, 師道賞에 심경석 전 서울교육대학교 부설초등학교장, 學術賞에 이응백 모교 명예교수, 功勞賞에 장승식 단국대 명예총장을 시상했다. 시상은 상패와 순금 메달이 수여되었다.

이 황은 모교와 동창회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한 품문 사회 각 분야에서 훌륭한 업적을 쌓아 국가와 사회 발전에 공헌함으로써 모교와 동창회의 명예를 높인 동문 또는 단체를 시상하여 우리 서울 師大人의 긍지를 높이고, 귀감으로 삼아 동창회의 단합과 활성화를 이루기 위하여 2008년 12월에 제정, 금년 처음 시상케 된 것이다.

상의 종류는 다음 세가지로 분류된다.

- (1) 師道賞 : 초중등 교육현장에서 학생지도, 학교경영 등 교육발전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동문
- (2) 學術賞 : 대학 및 연구기관 등에서 학술적 연구 실적이 우수한 동문
- (3) 功勞賞 : 사회 공익과 국가 발전을 위하여 헌신하고 훌륭한 업적을 쌓거나, 모교 발전과 동창회 활성화에 크게 기여한 동문 또는 비동문 개인 및 단체

淸冠大賞(師道賞)

教育學科 (54~58) 沈 暎 錫

위의 분은 師範大學에서 修學하고, 서울동명초등학교, 서울대사대부설초등학교 등의 教師, 서울시교육청 獎學士, 研究士, 서울교육대부설초등학교·서울신암초등학교 등의 校長을 역임하며, 研究學校·示範學校 運營 등 初等教育의 革新 發展, 教師의 資質向上에 크게 寄與하였으며, 200여권의 著書 등 兒童文學 활동을 통하여 독서 및 글짓기 교육에 貢獻하였고, 500여회의 學父母 教室 운영 및 강의를 통하여 父母들에게 子女教育에 대한 방법과 관심을 일깨워 주는 등 一線教育에서 戴身的으로 教育을 실천하고, 은퇴 후에도 끊임없이 教育奉仕 活動을 계속하고 있어, 이를 널리 알리고 기리어 우리 師範大 同門들의 龜鑑으로 삼고자 이 賞을 드립니다.

2008년 5월 23일

서울大學校 師範大學 同窓會 會長 卞 柱 仙

淸冠大賞(學術賞)

國語教育科 (45~49) 李 應 百

위의 분은 師範大學에서 修學하고, 梨花女子大學의 教授를 시작으로 서울大 師範大學에서만 32년간 재직하시면서 國語學과 國語教育을 理論적으로 體系化하고 實踐하여 後學들의 學問研究와 實踐을 이끌어 주셨으며, 이에 관한 20여권의 著書를 出刊하고, 120여권의 研究論文을 發表하셨을 뿐만 아니라, 文敎部의 國語科 審議會, 教育課程審議會, 教科書 編纂審議會의 委員 및 委員長 등으로 활동하시면서 國語科 教育의 學問的 基礎를 높으셨고, 임력이 漢字教育의 중요성을 여러 논문과 저서를 통하여 주장하시며, 停年退任 이후에도 韓國國語教育研究會長, 國語國文學會, 國語學會, 韓國國語文教育研究會의 活動에 직접 관여하시며, 執筆活動 등 學問研究에도 邁進, 後學들의 龜鑑이 되고 있어 이를 기리고자 이 賞을 드립니다.

2008년 5월 23일

서울大學校 師範大學 同窓會 會長 卞 柱 仙

淸冠大賞(功勞賞)

歷史教育科 (52~56) 張 忠 植

위의 분은 師範大學에서 修學하고, 檀國大學校 總長, 學校法人 檀國大學 理事長, 韓國大學教育協議會 會長으로서 大學教育 發展에 貢獻하였고, 86아시안게임 및 88서울올림픽, 스포츠과학 학술대회 조직위원회 위원장, 남북체육회담 한국수석대표, 대학체육위원회 위원장 등을 역임하며 대학체육의 발전과 스포츠 교류를 통한 남북한 화해 무드 조성에 크게 寄與하고, 대한적십자사 총재, 국제로타리 3650지구 총재, 제1차 남북이산가족상봉단 단장으로 봉사활동에 앞장서 왔으며, 1976년에 착수하여 2008년 10월 32년만에 완간된 漢韓大辭典은 漢字의 宗主國이랄 수 있는 中國에서 만든 漢韓大辭典보다 그 규모나 내용면에서 추종을 불허하는 世界最大의 漢韓大辭典으로 우리나라 學術文化 發展에 크게 이바지 했을 뿐만 아니라 漢字 文化의 學問的 研究에도 크게 寄與한 國家的 보물로 國家도 하지 못한 事業을 우리 師範大學 同門께서 達成하여 우리 師大 同門들에게 卬똥한 自矜心과 感動을 주신 功을 기리기 위하여 이 賞을 드립니다.

2008년 5월 23일

서울大學校 師範大學 同窓會 會長 卞 柱 仙

〈會長 動靜〉

- 09. 4. 24. 청관대상 운영위원회의 개최
- 5. 1. 홈커밍데이 행사 준비 위원회
- 5. 7. 동창회 고문회의
- 5. 11. 청관대상 후보자 심사위원회
- 5. 21. 이정식 동문 리사이클 참석
- 5. 23. 2009년도 정기총회
제1회 청관대상 시상
제1회 홈커밍데이 행사
- 7. 14. 동창회 상임이사, 각과 동문회장, 동호회장 회의

〈동창회 來訪 人士〉 訪問順 (2009. 4. 1.~7. 17)

- 柳子孝(佛語·68) 국제펜클럽 한국본부 부이사장
- 李柄好(英語·70) 서울국제고등학교 교장
- 金榮愛(生物·64) 여성부 총무
- 鄭玩鎬(生物·58) 한국과학교육단체총연합회 회장
- 宋眞雄(物理·79) 서울대사대 교수
- 朴俊彦(英語·77) 숭실대 교수
- 俞千根(教育·60) 전 구일고 교장
- 李秉錫(數學·65) (브)라이더커뮤니케이션 사장
- 蔡賢九(體育·78) 신림고 교사
- 金商俊(國語·48) 전 서울시 교육감
- 林東浩(教育·61) 본회 사업담당 부회장
- 金末順(物理·60) 여성부 회장

- 朴鐘煥(教育·64) 전 서원대 교수
- 李瑛敦(敎心·55) 전 방송통신대 총장
- 禹寅燮(國語·47) 전 서경대 교수
- 李應百(國語·45) 서울대 명예교수
- 許 菽(教育·69) 전 경인교대 총장
- 李相珍(化學·61) 서울시교육위원
- 成本燮(教育·60) 전 상계고
- 張錫祐 인천대 석좌교수
- 金在福 전 경인교대 총장
- 郭柄善(教育·66) 한국교육학회 회장
- 許 燦 전 중앙대사대 학장
- 高永信(國語·73) 경향신문 상무이사
- 金善福(教育·53) 전 인하대 교수
- 金英吉(教育·62) 전 성동고 교장
- 權淳康(敎行·61) 전 중앙일보 이사
- 高潤燮(英語·65) 영어교육과 회장
- 柳吉子(敎心·61) 전 서울여고 교장
- 崔泰禎(歷史·53) 본회 고문, 전 경북고 교장
- 李相周(敎行·56) 본회 고문, 전 교육부총리
- 崔容準(數學·61) 천재교육 회장
- 李鐘浩(教育·59) 본회 감사, 세무사
- 林東浩(教育·61) 전 사학연금 상무
- 金英吉(教育·62) 전 성동고 교장
- 朴美植(英語·76) 변호사

2009년도 사업계획

월/부	총무부	조직부	사업부	대외협력부	여성부	출판부
'09 05	• 2008년 결산 • 정기총회 • 청관대상 시상 • 홈커밍데이 행사	• 조직상황 점검	• 사업계획 수립		• 여성동문 임원 회의	• 회보 162호발행 (5.1)
06	• 상임이사회의			• 본회 활성화 방안 홍보	• 조직 강화 계획 수립	
07		• 시도지회장 회의				• 회보 원고 준비
08	• 청관장학금 지급	• 회원 이동상황 파악 • 신입회원 환영				• 회보 163호발행 (8.1)
09	• 집행부회장단 회의					
10		• 학과동문회장 회의	• 동문친목수련대회		• 여성동문임원 회의	• 회보원고 준비
11	• 고문회의 • 집행부회장단 회의 • 송년회준비			• 송년회 홍보 및 섭의		• 회보 164호발행 (11.1)
12	• 송년회 • 연하장 발송					
'10 01	• 신년교례회					• 회보원고 준비
02	• 청관장학금 지급 • 청관대상 후보자 신청 마감	• 신입회원 환영				• 회보 165호발행 (3.1)
03	• 집행부회장단 회의	• 회원 이동 상황 파악				
04	• 고문회의 • 정기총회준비		• 제 29회 권북동산 대회	• 정기총회 홍보 및 섭의	• 여성동문 임원 회의	• 회보원고 준비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관저 訪問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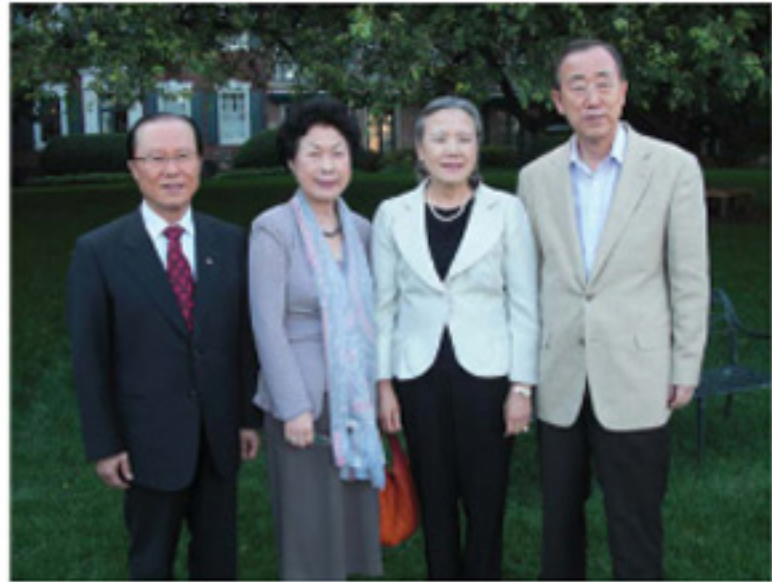
지난 5월 공무차 뉴욕을 다녀왔다.

New York을 방문중에 평소에 존경하는 반기문 UN 사무총장님 내외분께서 우리들을 관저로 초청해 주셨다. 사위와의 친분으로 딸 가족과 함께 동행하는 영광을 가졌다. "세계의 대통령"이라고 불리는 반총장님은 취임이후 숭가쁘게 지구촌을 순회하면서 한꺼번에 닥친 세계적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막중한 책임을 수행하고 계시다.

남편이 소속 된 국제로타리가 소아마비를 전 세계에서 박멸하는 운동에 대해 격려해 주셨고, 세계적으로 처해있는 아동의 사망, 빈곤, 교육, 문제까지 깊은 생각을 가져주시고 아동단체 협의회에 많은 관심을 보여주시며 의미있는 대화를 나누었다.

아름답게 새로 단장한 관저는 사모님의 세심한 배려로 한국의 아름다운 정취를 이곳저곳에서 느낄 수 있었다. 허드슨 강이 내려다보이는 아름다운 정원에서의 정겨운 환담은 오랫동안 잊을 수 없는 감명 깊은 시간이었다.

New York에서의 우리가족이 반총장님 내외를 만나 된 것은 대단한 축복이라고 생각한다. 전 세계 수억의 인구들에게 희망과 평화를 전달하고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바쁘게 뛰시는 존경하는 반기문총장님의 건강을 기원하면서 아쉬운 작별을 했다. <글 _ 卞柱仙>



右로부터 반기문 총장 내외분, 필자 내외

서울大 開校 元年의 再調整에 관한 一考

서울대 총동창회는 지난 3월 30일(월) 정기총회에서 '모교 개교 원년 재조정 촉구 건의안'을 결의하고, 이장무 총장에게 전달한 바 있다.

그 동안 동문 다수는 흔히 현 서울대학의 뿌리를 일제시대의 경성제국대학의 설립으로 알고 있거나, 1946년 8월 22일 비군정청법령 102호에 의한 '국립서울대학교 설립에 관한 법령'(소위 국대안)에 의해 설립된 것으로 잘못 알고 있으나, 1946년의 '국대안'은 경성대학(경성제국대학의 후신)을 폐지하고, 1895년에 설립된 법관양성소, 한성사범학교(경성사범학교, 경성여자사범학교 전신), 1899년 설립된 의학교, 수원

농림전문학교, 경성공업전문학교, 경성광산전문학교, 1904년 설립된 농상공학교를 각각 뿌리로, 통합 국립서울대학교를 신설한 것이며, 1924년에 설립된 경성제국대학의 후신인 경성대학은 서울대학 설립의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고 있음을 학계는 밝히고 있다.

따라서 우리 사범대학의 뿌리도 경성사범학교나, 경성여자사범학교가 아닌 그 이전 1895년의 한성사범학교 설립으로부터 그 연원을 찾아야 할 것이며, 그 동안의 변천과정과 내력에 관해서도 더욱 깊은 관심과 성찰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 會報는 천재교육 崔容準(數·18) 會長의 厚誼로 費用 全額을 出捐하여 刊行된 것입니다.

「教員研究年制」법안 추진



林寅主(教·79) 議員

교원연구년제에 대한 법제화가 추진된다. 임혜규 한나라당 의원은 9일 국회의원 회관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교총 등과 협조해 교원연구년제에 대한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지속적으로 교원연구년제 연구를 담당해온 안세근 전국대 교수는 “시대와 학생이 바뀌면 수업방식도 바뀌어야 하므로 방학 동안에 실시되는 직무연수와는 다르게 교사들에게도 자기 계발을 위해 10년 단위로 교원연구년제와 같은 연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교수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 교사에 대해서는 방학이 있는데 왜 연구년제가 필요하냐는 의견도 많은데 선생님들도 새로운 지적 정보가 축적돼야 한다는 뜻에서 국민들을 설득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라며 “법제화가 돼야 예산에 의해 좌우되거나 사장되지 않고 그 의미를 살릴 수 있을 것이므로 입법화를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현재 교원에 대한 평가는 징벌차원에 머무는데 잘하는 교사에 대한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며 “포상으로 적용하거나 수석교사와 연계시키는 방법도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신정기 교총 정책교섭실장은 “포상의 차원이 아니라 교사들 누구나가 교원연구년제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개념으로 도입돼야 교사들의 사기진작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교원평가와 연계하는 것에 반대했다.

교총은 10년 이상의 교원에 대해 급여를 100% 보장하면서 국내의 대학과 기관에서 1년(6개월 연장 가능)의 연수기간을 두는 교원연구년제를 추진해왔다. 한편, 교원연구제의 적용·활용방안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안 교수는 “교원연구제를 시행하면 그 결과를 어떻게 평가하고 공유할 수 있을지를 미리 중점적으로 논의해야 이 제도가 사장되지 않고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현숙 장신고 교감은 “교사들에게는 교수기법에 대한 교육이 중점적으로 필요하므로 논문으로 결과물을 내기보다는 해외 학교 현장에서 수업을 하고 배우면서 그 학교에서 평가를 받고 국내에서 공개수업을 자주 실시해 공유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나향욱 교과부 교직원발전기획과장도 간담회에 참석, 이같은 의견을 경청했다.

※ 지난 5월 23일 흥커밍데이 행사를 위해 협찬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협찬자 명단

회장 변주선	5,000,000원	김재호(생물·56)	100,000원	국어교육과(회장 이상득)	300,000원
강신주(사회·51)	1,000,000원	황선용(사회·57)	100,000원	영어교육과(회장 이익환)	300,000원
장충식(역사·52)	1,000,000원	최병호(화학·57)	100,000원	독어교육과(회장 류근찬)	300,000원
이상주(교정·56)	1,000,000원	김말순(물리·60)	100,000원	물어교육과(회장 서형래)	300,000원
윤용혁(독어·60)	500,000원	서정선(화학·60)	100,000원	지리교육과(회장 최은석)	300,000원
곽병선(교육·66)	500,000원	이원우(교육·63)	100,000원	물리교육과(회장 김범기)	300,000원
이정식(지구·72)	300,000원	유정숙(체육·64)	100,000원	화학교육과(회장 신정숙)	300,000원
이성진(교육·53)	200,000원	윤지화(회장 이영규)	500,000원	지구과학과(회장 이규래)	300,000원
이성진(화학·61)	200,000원	청평화(회장 윤용혁)	300,000원	체육교육과(회장 정용근)	300,000원
이원희(국어·76)	200,000원	여성동문회(회장 김말순)	300,000원		

전시 대학생에게 큰 자극을 주신 사대 고�광만 학장님

제2차 대전이 미국과 그 우방의 승리로 끝났을 때 아마 제일 큰 어부지리를 본 것은 우리나라였을 것이다. 우리 독립군의 힘만으로는 도저히 역부족이었을 때 미국의 승전은 우리에게 해방을 가져다 준 '구세주'였다.

이로 인하여 우리나라에도 미국영어의 열풍이 서서히 불기 시작하였다. 나는 선친의 권유로 YMCA에서 영어강좌를 많이 들으면서 일찍부터 영어 공부에 몰입했다. 그러나 우리나라 말에 없는 발음, 즉 'i, v, th'의 발음을 제대로 가르쳐주는 선생님은 아무도 안계셨다.

고교시절에는 어느 미국 선교사가 일주일에 몇 시간씩 가르치는 영어성경을 배웠는데, 그 선교사가 은퇴해 미국으로 들어갈 때까지 예석하게도 발음문제를 따로 가르쳐 주지 않은 것으로 기억한다. 그런데 그 중 한 학생의 발음이 유난히 좋아서 매우 부러움을 샀던 일이 있었고, 어떻게 해서 그런 완벽한 영어 발음을 하는가가 수수께끼였다.

드디어 나는 사범대 영어교육과에 입학하였다. 1951학번이니 1950년에 6·25가 발발해서 각 도청소재지에서 서울대학교 입학시험이 실시되었고, 그 당시는 가을학기가 미국처럼 첫 학기여서 추운 겨울 대신 따뜻한 여름에 입학시험을 치렀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영어문제는 해석문제만 나왔고, 면접시에 교수님이 영어 시험이 어떻게 나왔느냐는 질문을 하셨을 때 나는 그 문제들을 전부 외워서 우리말로 말씀드린 기억이 난다.

1학년은 전시연합대학에서 이수했고, 그 이듬해에는 임시수도인 부산에 가서 공부하거나 지방대학에서 이수할 수 있게 되어서, 나는 지방대학을 선택했다. 3학년 때는 환도한 후여서 서울로 와야 했다. 전시였고 더구나 3학점짜리 세 시간을 한꺼번에 하도록 시간표가 짜여 있어서 교수님들이 몇 분외에는 한 20분 늦게 들어와서 한 30분 일찍 끝내고 나가는 분들이 많았다. 그 덕에 우리들은 잡담으로 지새웠던 기억이 난다.

전시였기에 영어교육과 교육과정도 제대로 운영됐는지 알 수 없었다. 더구나 1학년은 전시 연합대, 2학년은 지방대에서 수강했으므로 균형 잡힌 커리큘럼이 되지 못했으므로 영어용성학을 배우지 못했다. 그런데 주한 미국교육사절단이 우리학교에 미국 교수 세분을 보내주어 교육학을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였다. 그 교수님들은 어느새 학생들 이름을 외웠는지 내게



김광만(영·51세)
아주대 명예교수

도 "Mr. Kim"이라고 부르면서 질문을 해 주었고 그때 난 '과연 미국교수들은 다르구나'라고 느끼며, 매우 재미있는 시간을 보냈다. 그 분들과 함께 부속초등학교 선생님 한분이 같이 와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어린이 행동에 관한 case study'를 숙제로 내주었고, 또 가끔 영어노래도 그의 피아노 반주로 배웠는데 그 노래들 중에는 'Swing Low, Sweet Chariot'도 있었다. 지금도 잊지 않고 가끔 부

르고, 그 후 내가 영어 교사가 된 후 내 제자들에게도 이 노래를 가르쳐 주었다.

그러는 동안 한번은 UN군에 파견됐던 필리핀군의 예술단이 우리학교에 찾아와서 캠퍼스에서 공연을 한 일이 있었는데, 이런 일은 처음 있는 일이라서 전교생이 참가해 열광적으로 관람했었다. 그때 그 연예단 대표 필리핀 장교가 우리 사대 여학생 가운데 어느 미인을 보고 "You are very 곱다!"라고 말해 관중들의 폭소를 자아낸 것을 지금도 나는 기억하고 있다. 그 날 고풍만 학장님은 이들에게 영어로 환영사를 하셨는데 그 유창한 영어연설은 참으로 잊을 수가 없다. 호소력 있고 투명한 음성엔 정확한 발음으로 하신 그 스피치는 전시 영문학도였던 우리에게 큰 자극이 되었다. 나는 그 후로 우리나라의 어떤 정치인이나 외교관의 영어연설에서도 우리 고풍만 박사님의 연설에서 느꼈던 황홀감을 느껴보지 못했다. 우리 고풍만 학장님은 최고학년이 된 우리교실을 찾아오셨다. 일부러 자원해서 오셨는데 이대로 졸업시키기가 어쩐지 부족한 느낌이 드셨는지도 모른다. 그분은 다른 말씀보다 우리들의 발음문제를 일일이 체크하셨다. 특히 우리말에 없는 영어의 발음문제를 우리 입을 통해 일일이 확인하셨는데 다른 발음은 대충 넘어갔으나 'v'의 발음은 우리말의 '브'와 전혀 다르다 하시고, 우리의 혀가 입천장에 닿으면 안 된다고 가르쳐 주셨다. 나는 대학 4년간 이 가르침을 최고최대로 간직하게 됐고 4년간 이것 하나 배운 것으로 대만족하였다. 그 후 내가 미국으로 가서 영어용성학을 제대로 배웠을 때 고풍만 박사님이 가르쳐 주셨던 'v'의 발음이 입의 구조로 봤을 때 혀가 입천장에 닿지 않은 것을 확인하였다.

나는 지금도 그 때의 고풍만 학장님의 명연설과 함께, 가장 중요한 발음문제를 일부러 오셔서 가르쳐주신 그 은덕을 기리고, 최고의 은사로 모시고 있다.

■ 모교소식 ■

□ 정년교수 환송연

사범대학은 지난 3월 17일(화) 교수회관에서 김동진, 이종재, 정청희, 한기상 교수의 정년 환송식을 거행하였다.



□ 스승의 날 시은회

사범대학은 지난 5월 14일(목) 교수회관에서 명예교수, 변주선 동창회장, 학과장 등 60여명 참석한 가운데 스승의 날 시은회를 거행하였다.



□ 국립과천과학관 협력 협정 체결

사범대학과 국립과천과학관은 지난 5월 20일(수) 교수회관에서 교육 제반 영역에 대한 폭넓은 교류 및 상호 협력 프로그램 진행을 위한 협정을 체결하였다.



■ 학과소식 ■

□ 國語教育科

◆ 신규 발령 교사 만찬

4월 9일(목)에 동문회에서 '신규 발령 교사 초청 만찬'을 개최하여 동문 선배들이 교단에 처음 서는 후배 교사들을 축하하고 격려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참석한 신규 발령 교사들은 여러 선배님의 격려사를 들으며 교사의 보람과 사명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뜻 깊은 시간을 보냈다.



◆ 국어교육과 60돌 동문 장학기금 동관 헌관식

5월 21일(목)에 국어교육과 60돌 동문 장학기금 동관 헌관식이 학과 사무실에서 있었다. 이 동관은 지난 2007년 국어교육과 60돌 행사 때, 동문들이 서울대 발전기금으로 1억 원을 출연한 것을 기념하기 위하여 제작된 것이다.



□ 英語教育科



2009년 정기총회가 6월 1일 관악 솔밭식당에서 황적운, 심명호 은사님을 모시고 30여명의 동문이 참석하여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이날 이익환 회장 후임에 고윤섭(65학번)동문이 회장으로 선임되어 앞으로 영어교육과 동문회를 이끌어 가게 되었다.

□ 獨語教育科

독어교육과 주관 '2009 지명인사 초청특강'이 4월 30일(목) 오후 2시 사범대 교육정보관에서 열렸다. 대하기 열리는 이번 행사에는 김명곤 전 문화부장관(독어교육과 11회)을 초청하여 "예술가의 삶과 문학적 상상력"이라는 주제로 강연과 토론타임을 가졌다. 김 전 장관은 행사가 끝나고 참여한 학생 및 교직원들과 저녁 식사를 함께하며 친목을 다졌다.



□ 歷史教育科

◆ 대학원 하계 워크샵

역사교육과는 7월 23일(목)부터 24일(금)까지 서울대학교 농업생명대학 태화산 학술팀에서 2009년 하계 대학원 워크샵을 개최했다. 이는 학위논문 작성과정의 일환으로 논문주제에 대한 기초적인 발표 및 동료 대학원생·학과 교수진과의 의견 교류를 통한

연구의 질 향상 및 친목도모의 시간을 가졌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석사 2명의 발표가 있었다.

■ 社會教育科

사회교육과 송동문회(회장 : 주자문, 65학번)는 지난 5월 9일(토) 가족 동반 관악산 등산대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등산대회



에는 49학번부터 06학번까지 세대에 걸친 동문들의 참석이 이루어졌으며, 가족을 동반한 60여명이 함께한 뜻 깊은 행사로 치러졌다. 매년 개최되었던 등산대회지만, 올해는 90년대 이후 학번이 많이 참가하여 젊은 동문들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결실을 맺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집행부에서는 앞으로도 젊은 세대들의 참석을 더욱 장려하여 선후배간의 폭넓은 교류의 장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다.

■ 化學教育科

◆ 화학교육과 동창회 임원과 모교 은사님과의 만남

지난 6월 10일(수) 18시에 서울대 호암교수회관에서 화학교육과 동창회 임원과 모교 은사님과 만남의 자리가 있었다. 시종일관 화기애애한 분위기속에서 동창회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고, 신정숙 회장님께서 수고하시는 임원진과 모교은사님에게 조촐한 선물(모시메리)을 주며 격려해주셨다. 이날 참석한 임원은 신정숙 회장, 오두환, 홍지준 부회장과 정문호, 김득호 감사, 김봉래 송무가 있으며, 모교 은사님은 채희권, 홍훈기, 류재훈, 노태희, 정대홍 은사님께서 참석해 주셨다.

■ 體育教育科

◆ 2009년 모교 방문의 날



2009년 모교 방문의 날 행사가 5월 16일(토) 서울대학교 일대에서 각 운동부별 OB 전술 시작으로 개최되었다. 우천으로 인하여 테니스 대회와 등반대회가 취소되었지만, 럭비부는 빗속에서 수중전을 치르는 부지를 보여주었다. 석식 후에는 재학생들이 준비한 다양한 공연과 레크리에이션이 행사의 흥을 돋웠다.



◆ 2009년 대학원 야외 세미나

2009학년도 서울대학교 체육교육과 대학원 야외세미나가 5월 30일(토)~31일(일) 1박 2일의 일정으로 총 129명이 참여한 가운데 강원도 평창 휘닉스파크에서 진행되었다.

현재 인간문화재인 이애주 선생의 강연과 전공별 토론회, 등산, 세부전공별 축구대회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어 모두가 한마음이 되는 소중한 자리가 되었다.

■ 동 호 회 소 식 ■

「청사로타리」

師大 동문을 주축으로 이루어진 국제로타리 3650 지구 서울청사클럽은 최근 卍昌燮(92·61) 회장을 09~10회기 회장으로 선출했다. 아울러 송무이사에는 鄭炳禧(88·62) 서울대 명예교수, 재무이사에는 趙升濟(88·64) 모교 수학교육과 교수, 사찰이사에는 朴景賢(88·64) 국립경찰대 교수, 柳子孝(88·65) 전 SBS 라디오 본부장이 맡아 일하게 됐다.



단국대 교육대학원장인 卍昌燮 회장은 지난 1년간 회장직을 맡으면서, 회원 증강운동에 박차를 가해 최근 李容秀(축구해설가), 朴景賢(국립경찰대 교수), 金信一(전 교육부총리) 동문 등 20여명을 신규로 가입케한 공로로 3650지구총재로부터 표창을 받은 바 있다.

로타리 정신(봉사와 친목)에 동조하는 우리 사범대학 동문 누구에게나 문을 활짝 열고 가입을 환영하고 있다.

「청언회」

◆ 안상수 시장 초청 인천 송도 방문



지난 6월 27일(토) 안상수 인천시장 초청으로 인천 송도경제지구 방문이 있었다.

인천대교의 건설 현장과 영종 국제공항, 청라지구, 송도 경제지구를 축으로 발전하는 인천의 개발 현장을 견학하고 간담회를 가졌다.

■ **李文烈 동문, 예술원 文學부문 수상자에, 金后蘭 동문, 예술원 신입회원에.**

예술원(회장 김수용) 최근 정기총회를 열어 제54회 예술원상 수상자로 문학부문에 소설가 **李文烈(國·68入)** 동문을 선정했고, 시상식은 오는 9월 7일 서울초동의 예술원에서 열린다. 한편 시인 **金后蘭(家·53入)** 동문은 예술원 신입회원으로 선출되었다.



■ **尹在錫(化·71入) 동문 '나의 살던 서울은' 出版**



국민일보 논설위원이며 총동창회 논설위원인 **尹 동문**이 서울 토박이의 삶을 술회한 에세이집 **출판** 5대째 서울에 살고 있는 **尹 동문**은 서울시 四季, 명소와 비소에 대해 나름대로의 관점으로 해석했다. 아울러 서울에서 만난 수다한 사람들과의 인연을 소중히 여겨 그들과 나누는 교감을 책 속에 담고 있다. (청어 刊)

■ **禹漢鎔(國·68入) 동문 한국근대문학교육사 연구 出版**

모교 **師大** 국어교육과 **禹漢鎔** 교수는 이 책에서 중등교육에서 이루어진 문학교육의 과정을 기술하고 그 과정을 밝히는 한국문학 교육의 전망을 제시하였다.

禹 동문은 이 책에서 문학교육은 인간의 성장문제를 핵심사항으로 다루고, 학습자를 문학적 인간으로 육성하고 인격형성을 도모하는 일이 문학교육의 책무이며, 감수성과 논리와 이념이 조화를 이룬 성장을 꾀하는 데에 문학교육의 가치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서울대 출판부 刊)

■ **朴永峻(敎·68入) 동문 제11회 모교초청 시은골프대회 우승**



서울대 총동창회(회장 **林光洙**)가 스승의 날을 기념해 지난 5월 9일(토) 인천그랜드CC에서 개최한 제11회 시은골프대회에서 인코HR대표인 **朴 동문**이 우승을 해 '모교 총장배'를 받았다.

한편 조별 우승자로는 IN코스에서 1조에서 **金信福(敎·64入)** 교육학과 교수가 우승상을 받았으며, 동창회장배를 수상한 **朴永峻** 동문은 정품 추첨에서도 당첨돼 피아노를 경품으로 받는 겹경사를 맞았다.

■ **吳憲鎔(國民倫理·86入) 동문 '세계를 이끄는 한국의 창조적 공학자들' 出版**

모교 **師大** 교육학과 교수인 **吳 동문** 등이 대한민국 최고의 상을 수상한 29명의 공학자를 인터뷰해 한사람 한사람의 삶을 소개한 책. (서울대 출판부 刊)



■ **鄭範談(敎·45入) 前 한림대 총장**



鄭範談 동문께서는 학회지 「교육학 연구」에 투고되는 논문들의 질적 수준제고를 위해 매년 일천만원씩 발전기금을 한국교육학회 쾌척키로 했다. **鄭** 동문의 아호를 따 「**燕洲論文賞**」으로 명명된 본상의 금년도 첫 번째 수상자 범위는 작년도 9월 1일 이후 금년 8월 31일까지 「교육학연구」에 게재된 논문들을 대상으로 한다.

■ **鄭燦漢(體·66入) 단국대 교수**



정찬모 교수가 국제로타리 3650지구 한성클럽의 36대 회장으로 취임했다. 한성클럽은 창립 36년 된 명문클럽으로 장충식(歷·52入) 전 3650지구 총재가 창립하였다.

■ **李元熙(國·76入) 동문 제28회 스승의 날 기념식 개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이원희)는 지난 5월 15일(금), 교육과학기술부와 교원단체가 공동주최하고, 학부모단체가 후원하는 제28회 스승의 날 기념식을 한승수 국무총리가 참석한 가운데 양재동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개최했다.



■ **金正輝(교대원·73후) 동문 '교육의危機' 出版**

춘천교육대학교 교육심리학과 교수인 **金 동문**은 **美** 컬럼비아대학의 **Barry A. Farber** 교수의 저서를 우리말로 번역 출간했다.

이 책은 미국에서 이미 발생했던 공교육 부실로 인한 교육의 위기, 그에 대한 처방으로 세운 교육 개혁, 그것을 실천하기 위한 열쇠를 무엇보다 현장교사들을 괴롭히는 직무 스트레스와 발전이 왜 미국의 교육을 위기로 진단하게 만들었는가에 대한 이해로 풀어가고 있다. (박학사 刊)

■ **柳子孝(佛·65入) 동문 3650지구 사무총장에 취임**

국제로타리 3650지구(총재 윤영석)는 09~10년도 사무총장에 **柳子孝** 동문을 임명했다. **詩人**이면서 **放送人**이기도 한 **柳 동문**은 현재 국제펜클럽 부회장직도 수행하고 있다.



■ **高澗雲(英·65入) 동문 자동차경주대회 참가**

현재 영어교육과 동문회장인 **高 윤섭** 동문은 "2009 Super Car 당전 400m Drag Racing" 자동차 경주대회에 참가했다. 이날 참가자 중 최고령자로 큰 박수를 받았으나 기준시간 16초(17.33기록) 미달로 아쉽게 탈락했다.



■ 李元雨(敎·63入) 동문

꽃동네현도사회복지대학교 대학교육역량강화사업 향후 세부추진 계획 발표



꽃동네현도사회복지대학교(총장 이원우, 이하 꽃동네대학교)가 2009학년도 교과부 교육역량강화사업 재정지원 대학으로 선정되어 총 8억 6천 9백 만 원을 지원받게

됨에 따라 향후 효과적인 사업 진행을 위하여 세부 사업계획안을 발표하였다.

꽃동네대학교의 2009년 대학 교육역량 강화사업은 학생 장학금 지원, 취업 촉진 프로그램, 인성 및 교양 증진, 실천중심 휴먼복지인력 양성, 글로벌 복지인력 양성의 총 5개 사업으로 나누어 각 사업별 팀을 구성하여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이 대학은 보건복지가족부가 주관하는 2009년 지역사회서비스 청년지원사업단에 최종 선정되었다.

■ 金贊烈(敎·75入) 동문

학교교육혁신화를 위한 KICE 교육과정·평가 정책 모델 개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원장 김성열)은 지난 6월 30일(화),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학습 부진 학생과 학교의 현실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 공유 및 학습 부진학생 지도·지원 정책의 기본 관점/입장 재 고찰, 그리고 기초학력 증진을 위한 대안적 방향과 정책적 시사점을 주기 위해 정책 방향 탐색을 위한 KICE 정책포럼을 개최하였다.



■ 郭柄善(敎·66入) 한국교육학회 회장

「대학입시자유화와 교육정상화, 학술대회 개최



郭柄善 동문은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공동으로 지난 4월 25일(토), 경북대에서 국민적 현안인 「대학입시 자유화와 교육정상화 : 그 의미와 과제」라는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 陳東燮(敎·72入) 한국교육개발원 원장

국제회의에 우리나라 수석대표로 참석



한국교육개발원 진동섭 원장은 2009년 4월 20일(월)부터 23일(목)까지 프랑스 파리 OECD 본부에서 개최된 OECD 5차 교육정책 위원회 및 80차 교육연구혁신센터(CERI) 집행 위원 회의에 우리나라 수석대표로 참석하였다.

현재 진동섭 원장은 OECD CERI의 집행위원으로 활동 중이며, 이번에 참가한 회의는 상반기 정례회의로 각국의 교육혁신 전략, 직업훈련교육 시스템 혁신, 교육평가 및 질 향상 등의 사업 및 연구경과 보고, 정책관련 사항 및 실행사례를 논의하는 자리였다.

OECD 회의는 OECD 국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공동의 과제를 인식하고 해결하기 위해, 우수사례를 교환하고 좀 더 나은 해결방법을 모색하기 위해 연 2회 개최되는 정례회의이다.

■ 金現京(化·41회)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대수능연구관리본부 부연구위원으로 재직 중 (연락처 : 010-2309-4502)

■ 李圭碩(地球·66入)

교육과학기술부 학교교육지원 본부장

‘2009 송년의 밤’ 개최

- 일 시 : 2009년 12월 1일(화) 오후 6시,
- 장 소 : 을지로 프레지던트 호텔 31층 슈벨트홀 (02-753-2170)
- 회 비 : 30,000원
- 행사내용 : ① 모교 은사 모시기
② 동창회관 기금 마련 육선
③ 공연 및 여흥
④ 기념품 증정

※ 참석여부를 11월 20일까지 본회 사무국으로 신청 바람. 입장시에 좌석표를 배부함.

原稿 모집

제164호 동창회보에 게재할 原稿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1. 발간시기 : 매년 2월 1일, 5월 1일, 8월 1일, 11월 1일
2. 원고마감 : 발간 1개월 전
3. 회보형태 : A4(국배판) 16면
4. 모집원고 : ① 各 科 同 門 會 소식
② 各 市 道 支 會 소식
③ 各 동아리, 모임 소식
④ 同 門 個 人 動 靜, 人 事, 慶 弔 事
⑤ 詩, 隨 想, 寫 眞
⑥ 동창회에 대한 건의사항 등



5. 보낼 곳 : (100-130) - 서울시 중구 순화동 215 바비영3차 1807호

E-mail-snueea@hanmail.net

※ 가급적이면 기고자의 E-mail 주소와 사진을 함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회관건립기금 모금에 동참합시다.

■ 계좌번호 : 하나은행 221-910002-46305 (예금주 : 변주선)

천재교육의 崔容準 회장을 비롯한 회관건립기금 모금에 동참해 주신 모든 동문들께 충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현재의 모금 총액은 약 31억원이 되었습니다.
아직 참여하지 못하신 동문들께서는 액수의 과다에 께넘치 마시고 동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회관 건립 기금 신규 출연자 (2009. 4. 4.~2009. 6. 15.)

김형기(불어·29회) 200만원 김남조(국어·4회) 100만원 탁은수(국어·18회) 50만원 이부형(지구·56회) 30만원
※ 이미 납부하신 분의 명단은 본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동창회비를 납부합시다.

본 동창회는 師大 전체 동창회의 活性化는 물론 各科 同門會, 市道支會 등의 활성화에도 적극 관심을 갖고 함께 그 방안을 모색하고 있을 뿐 아니라 회원간의 동호회 활동, 친목대회, 동문과 동문간의 교류지원방안 등도 강화하고자 합니다. 많은 동문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시고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지로번호 : 7521964
- 계좌번호 : 하나은행 221-910002-43405 (예금주 : 변주선)

회비내역

- 자 문 위 원 : 100,000원 이상
- 회 장 : 2,000,000원 이상
- 부 회 장 : 500,000원 이상
- 감 사 : 300,000원 이상
- 상 임 이 사 : 200,000원 이상
- 이 사 : 50,000원 이상
- 일 반 회 비 : 20,000원 이상
- 평생회비(1회) : 200,000원

회비 납부자 명단 (2009. 4. 17.~2009. 6. 15.)

회장단·임원회비

변주선(회장, 영어·17회) 200만원
오기세(출판부 차장, 지리·33회) 10만원

평생회비(20만원)

신희영(물리·7회)	윤홍식(물리·13회)	이재후(역사·23회)
이복련(생물·8회)	신부철(사회·14회)	정천모(체육·23회)
전영우(국어·10회)	김정홍(화학·14회)	박종국(물리·24회)
김성진(사회·10회)	유영주(가정·14회)	이종락(교육·25회)
홍학순(화학·10회)	강규석(물리·15회)	이서현(역사·26회)
김영훈(교육·11회)	홍성화(교심·16회)	이성구(국어·27회)
심경석(교육·11회)	김희영(교육·17회)	한천욱(물리·28회)
이기봉(교심·11회)	이용학(사회·17회)	정문생(물리·29회)
전동기(교형·11회)	박진홍(수학·18회)	이강호(국어·31회)
김영대(물리·11회)	오수량(물리·19회)	김경희(사회·31회)
이석천(물리·11회)	김종규(화학·19회)	이용수(체육·34회)
박종세(교육·12회)	박강은(국어·21회)	김현경(화학·41회)
김순오(가정·12회)	이경식(역사·22회)	

이사회비

(교육)	윤정일(19회) 10만원	전성덕(11회) 5만원
정원식(7회) 10만원	(국어)	이태규(14회) 5만원

김봉근(17회) 10만원	오성종(15회) 5만원	(화학)	
정귀생(17회) 5만원	(수학)	박효석(27회) 5만원	
(영어)	최홍진(6회) 5만원	(생물)	
김경수(17회) 5만원	최안희(15회) 10만원	윤택중(13회) 5만원	
연다성(17회) 5만원	정만덕(16회) 5만원	손영목(17회) 5만원	
(역사)	송태성(21회) 5만원	(가정)	
이원순(2회) 10만원	(물리)	김순동(9회) 5만원	
이선준(5회) 5만원	김종연(16회) 5만원	(체육)	
고준식(8회) 5만원	이상욱(27회) 5만원	박종달(6회) 5만원	

일반회비

(경사)	(교육)	정문환(13회) 2만원
정국진(강·3회) 2만원	서수현(8회) 2만원	(국어)
제옥례(여연·10회) 2만원	이진영(8회) 2만원	김길중(5회) 3만원
(경여사)	김소혜(11회) 2만원	한원영(6회) 2만원
고옥순(심·3회) 3만원	현재복(13회) 3만원	하만찬(7회) 3만원
오명숙(연·5회) 3만원	권 균(18회) 2만원	박태화(9회) 1만원
(예과)	방재근(19회) 2만원	방효정(12회) 2만원
서윤수(이48년) 2만원	윤재운(28회) 2만원	김성철(15회) 2만원
장유순(문48년) 2만원	이정진(34회) 2만원	권정순(16회) 2만원
한창욱(문48년) 2만원	(교심)	탁은수(18회) 2만원

황옥연(16회)	2만원	신형범(31회)	3만원	김창원(25회)	2만원	(수학)	김동찬(9회)	3만원	김옥련(15회)	2만원	
이은영(20회)	2만원	나도성(32회)	2만원	(역사)		홍정희(13회)	2만원	김준호(8회)	2만원	정진영(15회)	2만원
강현재(20회)	2만원	박현수(33회)	2만원	박장순(10회)	3만원	이종연(20회)	2만원	김규삼(9회)	2만원	오광숙(17회)	2만원
(영어)		(독어)		이홍중(11회)	2만원	(물리)		최계숙(9회)	2만원	(체육)	
김영춘(7회)	2만원	임상순(17회)	2만원	문정환(12회)	2만원	김희문(10회)	2만원	표지덕(10회)	2만원	윤종상(9회)	2만원
김순신(8회)	2만원	김상현(23회)	2만원	이봉현(13회)	2만원	김종욱(11회)	2만원	임익규(10회)	3만원	이우오(10회)	2만원
김봉규(9회)	2만원	이용덕(24회)	2만원	이세현(13회)	2만원	우상혁(13회)	2만원	박시현(11회)	2만원	조정제(10회)	2만원
이영주(9회)	2만원	(불어)		이희환(14회)	2만원	조양래(13회)	3만원	홍인기(11회)	2만원	김종우(11회)	2만원
이희영(10회)	2만원	표진이(23회)	2만원	강신태(25회)	2만원	최인수(13회)	2만원	신명자(13회)	2만원	박종서(14회)	2만원
황적륜(11회)	2만원	함오연(27회)	2만원	(지리)		정부길(17회)	2만원	이성규(14회)	3만원	이상철(16회)	2만원
최광안(12회)	2만원	(사회)		추성구(5회)	2만원	이성욱(24회)	2만원	곽동순(20회)	2만원	김경윤(17회)	2만원
류완수(13회)	2만원	서인경(9회)	3만원	신철중(7회)	2만원	김석영(25회)	3만원	심숙주(31회)	2만원	정용근(20회)	2만원
구양연(17회)	3만원	김형구(13회)	3만원	황석근(8회)	2만원	(화학)		(가정)		김정웅(26회)	3만원
박익두(17회)	3만원	한봉석(13회)	2만원	차도관(12회)	3만원	김상욱(4회)	2만원	한상순(3회)	2만원	황 주(42회)	3만원
김준한(18회)	2만원	이광열(14회)	2만원	박성희(13회)	2만원	장병덕(10회)	3만원	민해식(9회)	2만원	성명미상	3만원
노갑기(23회)	2만원	이호상(16회)	2만원	김용복(14회)	2만원	최성안(10회)	2만원	이종순(9회)	2만원		
차광순(23회)	2만원	나정은(17회)	2만원	국해웅(20회)	2만원	배대걸(23회)	2만원	이화숙(14회)	2만원		
백종식(31회)	2만원	황남택(21회)	3만원	최재연(26회)	2만원	(생물)		한익수(14회)	2만원		

※ 이미 납부하신 분의 명단은 본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인천 세계도시 축전' 관람

- 일 시 : 2009년 10월 8일(목) 9:00출발
- 장 소 : 인천세계도시 축전관람 및 인천대교 통과 관광
- 회 비 : 20,000원(입장료외), 저녁식사 및 기념품통창회 제공)
- 신 청 : 선착순80명(관광버스 2대 정원)
 - On-Line 입금만 가능
 - 하나은행 221-910159-88607 변주선

- 출발장소 : 지하철 5호선 서대문역 6번출구 앞 30m지점(약도 참조)
- 기 타 : ① 가족 동반도 하참가비 20,000은 별도부담)
 - ② 마감 후 신청은 차편 때문에 어렵습니다
 - ③ 예약 상황은 홈페이지에 게재합니다.
 - ④ 귀경 예상 시간은 오후 8시입니다.
 - ⑤ 입금 후 전화 확인 요망 026339-6500

• 버스대기 장소



미래의 도시 인천, 세계의 도시 인천



안상수(제·71入) 인천시장이 진두지휘하고 있는 2009 인천세계도시축전(Global Fair & Festival 2009 Incheon, Korea)이 "내일을 밝힌다(Lightening Tomorrow)"라는 주제로 미래의 도시를 꾸며 놓고, 이를 미리 체험해 볼 수 있도록 전시, 이벤트, 컨퍼런스 등 하루 70여개의 프로그램을 8월 7일부터 10월 25일까지 80일간 인천 송도국제도시 컨벤시아에서 개최된다.



▲ 인천국제(151층)의 중앙공원을 가로지른 인천대교

이오봉(제·61入) 전 조선일보사전부편집장이 촬영(6월27일)한 송도지구 건설현장과 인천대교 노을 ▶



인천대교

2009년 10월 웅장한 모습을 드러 낸 인천대교는 인천국제공항과 인천송도국제도시를 연결하는 국내 최대, 세계 5위 안에 속하는 해상 사장교는 '경이로운 세계 10대 건설 로 선정되었으며(영국 건설전문지 컨스트럭션 뉴스 (05.12) '유로머니(Eurcomoney)' 선정, '2005년 올해의 최우수이태지역 교통인프라 부문상' 을 수상(06.3)했다.

63빌딩과 맞먹는 주탑의 높이는 238.5m로 초속72m의 강풍과 진도7의 지진에도 견딜 수 있도록 아주 견고하게 지어졌으며, 세계 최대 하중(3만톤) 재하시험 실시, 주 경간 800m(세계 5위 규모) 확보로 항만 설계기준(563m), 국제 범용 설계기준(550m) 충족하며, 10만톤급 선박 충돌시에도 교량이 안전하도록 설계되어 100년 이상의 수명을 갖도록 설계되었다.

인천대교의 완공으로 제2, 제3 경인고속도로 및 서해안 고속도로와 연결되어 인천 및 서울남부, 수도권 이남 지역에서 인천국제공항까지의 통행 시간이 40분 이상 단축된다.

불만한 행사들

세계 주요 도시의 명소를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으며, 세계 문화의 거리에서는 6개 대륙별로 30여개 국가 200여개 도시의 관광상품과 개발계획, 미래 발전전략 등을 소개하는 도시관을 운영하게 된다. 관광레저 분야에서는 중남미, 아랍국가들의 이색 풍물전이 마련 되는데, 여기서 세계 각국의 다양한 문화와 음식체험, 전통예술 공연, 풍물을 경험할 수 있다. 21세기 동북아 허브로 거듭나고 있는 인천의 발전상을 가상체험 할 수 있는 체험관과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정책과 도시개발 및 국토환경 디자인, 기후 변화에 따른 그린시티 녹색성장을 주제로 한 21세기 뉴 패러다임을 가상현실로 체험할 수 있으며, 주제 영상관에서는 인간과 첨단기술이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미래도시 이야기를 주제로 한 입체영화 "시티 파라다이스" 가 국내 최대 규모인 1,000인치 초대형 입체스크린으로 상영된다.